

광주 남구, 1시간 1,000원 '공공 실내 놀이터' 만든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6억 5,000만원 모금 목표 내년까지 진행, 아이들 놀 권리 및 공간 확충



광주 남구 구청 전경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광주 남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9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과 연계한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민과 출향민 등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선 남구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6억 5,000만원을 목표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을 계획

이다.

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실내 놀이터가 조성되는 장소는 남구종합청사이다.

면적 264㎡(80평) 공간에 복합 놀이 존과 영유아 존, 역할·창의 존, 신체활동 존, 휴식·보호자 존, 어린이 화장실, 수유·기저귀 교환실 등을 만드는 게 남구의 구상이다.

실내 놀이터 이용 요금은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시간에 1,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청사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에 많은 주민들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내 놀이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를 기반으로 한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박종수 기자

서구, '입소문' 난 행복학교 3기 입학식 개최

만족도·추천 속 33명 입학

경쟁 탈피, 자연 속 가족 회복·성장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운영하고 있는 '함께서구 행복학교'가 부모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감형 교육으로 입소문을 타며 뜨거운 호응 속에 세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서구는 9일 화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인 '함께서구 행복학교' 3기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은 부모, 자녀, 가족 전체를 위한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모 행복학교'는 자기 돌봄을 통해 부모의 내면 근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자녀 행복학교'는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다.

특히 주말에 열리는 '함께 행복학교'는 화정근린공원의 자연 속에서 놀이와 예술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구는 행복학교를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교육 전문가, 심리상담사, 지역 예술가 등 전문 강사진과 함께 미래 지향적 학습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넓혀 이러한 변화를 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3기는 앞선 1·2기 참여자들

의 추천과 경험 공유를 통해 지원이 이어지며 최종 33명이 선발됐다.

특히 입학식에는 2기 부모 대표들이 참석해 가족이 겪은 변화 과정을 들려주며 3기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3기 참여자 고성아 씨는 “지난 기수의 성장 나눔회 소식을 접하고 참여를 결심했다”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문제 해결력과 부모 코칭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AI시대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1·2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3기의 기대감으로 이어진 만큼 이번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함께서구 행복학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

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기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부모 과정은 자기 돌봄과 내면 성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자녀 과정은 질문과 탐구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말 프로그램은 자연 속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한다.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확산도 함께 추진된다. 이전 기수 참여자들의 경험과 추천이 3기 모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입학식에서는 선배 기수 가족들이 변화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입소문' 난 행복학교 3기 입학식 개최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제65회 2026. 4. 10.(금) ~ 4. 13.(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4회 2026. 4. 22.(수) ~ 4. 24.(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군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구례군